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정기태



‘웃기는 짬뽕’이라는 말이 있다. 비정상적인 일이나 행위 등을 비난할 때 흔히 쓰는 속어다. 중국인이 만들었지만 일본에서 첫 선을 보인, 이 맛있는 요리에 ‘웃기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민주당 경선물을 보면서 ‘웃기는 짬뽕’이라는 말을 다시 떠올린다. 배심원제·여론조사·당원투표·서류심사·면접·적격심사...이 복잡한 방식들을 특검인사, 특검지역, 특검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접목하는 기술이 놀랍다.

‘고무줄 잣대’로 재단

민주당은 정치적 상징성이 큰 광주에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도입했다. 배심원과 당원 전수조사 각 50%로 시장 후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외부 인사들이 전문 배심원으로 참여, 가락을 추린다는 점이었다. ‘짜고치는 고무줄’이라는 슬픈 비난과 반대에도 불

구, 중앙당은 자신들의 복안을 밀어붙였다. 그 논란 속, 박광태 시장은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 후보 선택권을 갖는 것은 광주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며 3선 출마를 접었다.

한데 민주당의 원칙은 전남지사 경선에

‘웃기는 짬뽕’과 민주당

서는 실종됐다. 도민 여론조사 50%에 ‘체육관 동원 경선’(당원 선거인단 투표)을 50% 반영한 것이다. 이는 박준영 지사의 “당원명부 조작 의혹” 제기과 주승용 의원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 공방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고무줄 잣대”는 기초단체까지 적용됐다. 현역 국회의원과 같듯이 증폭된 곳엔 배심원제 등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여론조사나 당원의 반영비율도 일관성이 없다. 끝문(關門)에 서서 살생부(殺生簿)를 펼쳤던 ‘철삭동이’ 한명회가 시대를 넘어

출몰한 양상이다.

광양을 비롯한 몇몇 단체장은 탈당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후보자들도 비난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경선 방식만을 고집했다. 지지자를 동원해 데모를 하거나 연관장을 들렸다. 매일 쏟아지는 성명서며 진흙탕 싸움에 유권자는 너더리가 낫다.

결국, 상황논리에 따라 재단된 경선 방식은 ‘풀뿌리 공천권 역주행, 개혁 뒷전 폄수’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나 여론을 무시했다. “너는 바람 불해도 나는 바람 불”이라고 외면했다.

원장이 떠난 것도 같은 이유였다.

하여 ‘당신들의 天賦’는 ‘타자와의 구체적인 교감 없는 주체의 선한 의지가 어떻게 화합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작가의 질문은 ‘민주당의 당심(黨心)이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더라도 공감을 얻지 못해 정당성이 있었다’며 뼈아픈 지적과 일백삼통한다.

갈등과 분열의 심판 냉혹

다시 짬뽕 이야기로 돌아가지. 국적이 모호한 짬뽕은 시나브로 우리말로 정착, ‘서로 다른 것을 뒤섞음’이라는 의미를 부여받았다. 모두(冒頭)에 ‘웃기는 짬뽕’이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도 기실 민주당의 단체장 공천 방식이 그와 다를 바 없다는 메시지다.

경선 규정이 자중수로 드러나면, 현 지도부는 머잖아 책임소재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어쩌면 권세를 잃고 백의종군하거나 누구처럼 당을 떠나야 할 날이 올지 모를 일이다.

과열상을 막지 못하고 되레 부추긴 국회의원, 이해득실을 따져 움직인 철새들도 울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흑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웃기는 짬뽕’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냉혹한 심판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몫이고 책임이다.

<편집부국장> meonsan@kwangju.co.kr

시설

국비 확보 뒷전, 선거 올인하는 국회의원들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 심의가 임박했다고 한다. 각 부처별로 이달 말까지 내년도 국비 지원예산 신청서를 제출받아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나선다. 벌써부터 전국 지자체마다 각 부처를 상대로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 지원액을 한 톨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들간 치열한 국비 확보전쟁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들도 국비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R&D와 신성장동력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국비 2조5천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국별 태스크포스를 조그 가동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의 내년도 국비 확보전망은 밝지 못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비 확보는 뒷전인 채 지방선거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강운태·이용섭·주승용 의원 등이 직접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에 뛰어들면서 당내 후보경선에 올인하고 있다. 다른 국회 의원들도 2년후 총선에 대비해 자기 사립을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으로 삼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를 만나는 대신 자신의 지역구 공천방식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중앙당 로비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정치인들이 자라다 못한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구는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국비 확보를 위해 일사불란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는 대구시장과 한나라당 시장위원장이 공동으로 태스크 포스트를 구성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야당 일색인 상황에서 지역 정치인과 단체장이 똘똘 뭉쳐도 국비 확보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도 계파별로 사분오열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확보해야 할 지역 이익마저 놓치기 십상이다. 지역 정치인들 때문에 숙원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도 넘은 유사석유 제조·유통 근절책 없나

휘발유에 유사석유를 섞어 팔다 적발되더니 이번에는 등유에 석유를 섞어 팔던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자들은 등유와 경유의 단순 혼합 방식에서 식별제·착색제까지 제거해 섞어 파는 신종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유사석유 유통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북부경찰은 22일 값싼 보일러용 등유를 섞어 만든 짝퉁(유사) 경유 수백만ℓ을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에 공급한 일당과 이를 판매한 주유소 업자들 48명을 적발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짝퉁 경유를 공급한 주유소가 무려 41곳에 달한다는 점이다. 광주 지역의 경우 주유소 13곳 중 1곳꼴로 가짜 경유를 팔았다는 놀라움 뿐이다.

이들 일당은 법정식별제까지 제거하고 유사경유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등유를 경유에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용 경유와 구분기 위해 등유에 식별이 가능한 빨간

색의 착색제와 법정식별제를 첨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뛰는 단속 위에 나는 법적이 아닐 수 없다.

유사석유를 차량에 주입했을 때 불안한 연소로 자칫 주행중 시동이 꺼질 수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연료가 불안한 연소됐을 경우 연료탱크 등 엔진계통의 기기에 이물질이 끼게 되며 결국 차량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된다. 특히 질소산화물이나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알데히드 등이 여과 없이 대기 중 노출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미칠 수 있다. 유사석유의 활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유사석유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석유관리원은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단속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허가 취소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유사석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오피니칼럼

박홍근



지난 3월 초 전국적으로 치러진 2010년 중학교 교과학술 진단체평가 2학년 국어문과에 이런 게 있었다.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영국 BBC 방송국은 이 질문에 가장 현명한 대답을 한 사람에게 1만 파운드의 상금을 주기로 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수학자와 교통학자까지 이 현상 공모에 응모했다.

1등이 발표되자, 사람들은 “그래, 이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야.” 하며 그 대답을 써낸 사람에게 무한한 존경을 표했다.

이 공모에서 1등을 차지한 답은 바로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였다.

광주 도시경관, 철학을 바꾸면...

질문은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리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는?” 그 답은 “대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였다. 그러다, 우리에게 진 genu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도시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도시 속 거리를 걸으면서 주변을 보게 된다.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좋은 장소와 거리도 있지만 너무나 실망스런 경관을 보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사각 박스형의 아파트, 정제불명의 의미 모를 구조물, 현란한 간판,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 등등. 그러나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 해도 예술성과 작품성이 있는 것들이 많은 도시가 있음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주관한 단체장의 문화의식 부족이고, 담당하는 실무자의 사회적 책임감 결여이며, 늘 해왔던 쉬운 방식에 얽매어 추진한 결과로 본다.

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결과물과 현재 진행 중인 현장을 보면 더 심각하다. 경관개선을 주장하며 경관을 해치고, 사람과 사람을 단절하고, 골목과 골목을 가로막고, 오랜 지역문화를 망가뜨리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특히 관

청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중에 심각한 것들이 많다.

광주천 교량개선사업을 보자. 대부분의 디자인이 과도하고, 설계자는 알 수 없으며, 시공과 유지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며, 주변 환경과 어울림도 부족하다. 그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을 찾을 수 없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토지주택공사의 재개발 사업을 보자. 환경개선이라 하지만 개선보다는 계약이 훨씬 많다. 광주 양림동 지역은 판상형 고층 아파트로 콘크리트 병풍을 만들어 무등산을 향하는 시선과 마음마저 단절시켰고, 주변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상쇄시켰다. 현재 공사 중인 백운동

지역은 도심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높이 7m의 옹벽으로 300m이상의 시멘트블록 성을 쌓고 있다. 현 집을 새집으로 바꾸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든다는 사업이, 약간은 불편했지만 도리어 인간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심주거지를 비인간적인 삭막한 거주환경으로 만들고 있다.

광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 우리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도시에 만들어지는 구조물과 건축물에 접근해야 한다. 기관장의 실적이 아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후손에 문화유산으로 가치 있고, 예술적으로 남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익을 내세우며 이익 행기 급급한 사업과 환경 개선을 주장하며 환경 계약을 하는 그런 일은 이젠 그만해야 한다.

종합적이고 창의적으로, 삶의 질과 문화를 먼저 생각하는 접근법을 모색하자. 사업을 하나하나로만 보지 말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접근하자. 그래야 어울림과 소통, 감동과 지역문화가 살아있는 광주 도시 환경이 된다.

<건축사>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오피니칼럼'을 수여 합니다. 오피니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오피니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명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기고

박인환



요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6월 2일 실시하는 지방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다. 정치 신인의 선거운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처음 도입한 예비후보자 제도도 인해 사실상 4개월여간의 선거 대장정에 돌입한 것이다.

다행스럽게 지난해 말 여야합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준비에 여유를 갖게 되었다. 후보자등록이나 투표표, 개표 등 법정선거절차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임에 분명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교육감, 교육의원선거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선거사(史)에 유례없는 8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

지방선거, 민주주의 꽃 만개해 보자

다. 사상초유의 동시선거 실시에 따른 업무폭주로 그 어느 때보다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사회적·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른 유권자의 투표권의 증대 및 선거정보제공 확대 요구 등 선거서비스 수요의 폭증도 예상된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고객에 대한 선거서비스 확대’를 기치로 정당,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하여 사전안내와 교육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의 선거공약 등 선거정보를 보다 빨리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현실은 3연(緣)의 복잡한 함수관계에 얽매어 씨족(氏族)대결이니, 동문(同門)대결이니, 소(小)지역주의니 하는 구태의연한 선거 풍토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전남지역의 경우 민선 4기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이 선거법위반이나 각종 비리로 중도하차한 사례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올바른 정치·선거 가치의 새로운 정립이 절실하다.

이의 실현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가치 기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헌신’이다. 세상의 이치는 내가 먼저 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먼저 받고 나중에 주는 순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유능한 지역일꾼을 선출하려면 유권자가 먼저 고뇌와 헌신이 들쭉 담긴 올바른 선택행위를 선행함으로써 기뻐할 일을 만들어 내야만 하는 것이다.

둘째는 ‘경청’이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말하는 정책, 정책, 공약을 결정하고 나서 선택에 임하라는 말이다. 정당의 소리, 후보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유권자에게 올바른 선택은 요원할 것이다.

셋째는 ‘타이밍’이다.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태도로 헌신과 경청을 하고 있더라도 갈망하고 있는 때를 잘 맞추어야 한다.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다. 유권자들이 새로운 정책과 비전에 목말라할 때, 그에 맞는 정치철학과 비전,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만이 유권자가 보내오는 열광과 감동의 화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새로운 민주적 가치에 목말라하는 요즘, 새로운 정치·선거가치를 창조하고 유지해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당위적 요청이다.

오는 6월 2일, 맞이하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주주의의 꽃(선거)을 만개해 보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권리과장>

MP3·휴대폰에 의한 청력장애 발생... 사용 자제해야

얼마 전부터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가는 귀가 먹은 듯 무슨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했다. 결국에는 이비인후과에 데리고 가봤더니 의사선생님이 “혹시 MP3나 휴대폰으로 귀에 리시버 꽂고 TV보며 다니느냐”고 물었다.

의사선생님은 그런 전자기기를 귀에 꽂고 다닐 경우 청소년들은 상대방이 무슨 대화를 하려고 골장 알아듣지 못하고 내용을

다시 묻는 식의 청력에 대한 장애 증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할 경우 결과에는 청력이상으로 주위 사람들의 대화에 대한 중심이 없으며 사물에 대한 집중성이 떨어져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제품으로 인한 청력 장애를 갖지 않도록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사용을 자제시켰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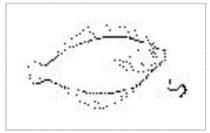
▲황인희·광주시 동구 대인동

無等鼓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즐겨 먹는 생선회 중의 하나가 광어(廣魚)로도 불리는 납치다. 육질이 단단하고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에 소화가 잘되는 데다 마린화 핏감으로 나오는 양도 많다.

그러나 현재 국내 납치 양식은 지속적인 생산단가 상승과 값싼 수입 활어의 증가, 시장 가격의 급변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족보 납치’



최근 납치 양식어가와 미식가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국내 수산연구진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일반 납치보다 40% 이상 빠르고 질병에도 강한 ‘족보 납치’를 탄생시킨 것이다. 유전자 정보가 담긴 전자칩을 지느러미에 심어 납치의 부모·형제를 알 수 있다고 한다.

근친교배를 방지해 열성 개체가 태어나지 않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형질이 개선된 납치가 탄생한다니 족보가 생긴 셈이다. 족보를 가진 납치는 과연 어떤 맛일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고경석 사회2부장 ksgo@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 처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처 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